

신 범 순

소월의 시집과 함께 그의 시론 <시혼>이 옆에 놓여있다. 비슷한 시기에 마치 그의 시편들을 옹호하기 위해서, 또는 그의 시창작이 가는 길의 행로를 정확히 가늠하기 위해서 그의 시론이 쓰였던 것이다. 그는 이미 식민지의 그들과 어둠이 10년 이상의 세월 동안 점점 더 짙어지고 두터워지던 시대에 제도권의 틀 안에서 자신의 참된 자리를 찾기 어려웠고, 자신을 문단 제도권에 이끌어주던 스승이자 정신적 형제였던 안서 김억과도 틈이 벌어졌다. 그의 시론인 <시혼>은 안서가 자신의 시에 대해 ‘시혼의 깊이가 얕다’고 비평한 것에 대한 반박으로 제출된 것이다. 그러한 논쟁은 우리의 관점에서 별로 중요하지 않고 또 김소월 시의 전개에서 결정적인 것도 아니었다. 그보다는 자신의 시적 행로에 대해 그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가에 대해 알 수 있는 중요한 정보들이 거기 있다. 그는 여기서 자신의 존재를 몸과 영혼의 관계 속에서 입체적으로 조명하는 특이한 관점을 제시했다. 식민지 체제 속에서 점차 근대화되어가는 상황 속에서 영적인 세계와 영적 존재들에 대한 사유, 개념들은 점차 진실의 범주 바깥으로 배제되어가던 시기였다. 근대 학문의 세례를 받은 많은 사람들이 점차 유물론으로 기울어져갔다. 조선의 식민지 지식인들도 마찬가지였다. 그러나 다수의 낭만주의적 성향을 가진 작가 시인들은 여전히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성으로서 ‘영혼’을 믿었고 개념적으로 그 단어를 계속 고집했다. 20년대 새롭게 떠오르던 사회주의 유물론의 세례를 받은 문인들이 경향파의 예술과 리얼리즘적 예술을 지향하면서 그러한 낭만주의를 비판하기 전까지 이러한 ‘영혼’ 개념은 예술적 정신과 주제의 중심요소였다. 예술과 사상에서 유물론자들이 영향력을 발휘하고 문단 예술계를 지배하면서 이러한 것들은 퇴락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한 개념들은 이미 근대적인 제도와 물질문명에 도전을 받으면서 이미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자신의 정체와 개념을 새롭게 파악하고 새롭게 세상에서 자신의 자리를 잡아야 했을 것이다. 김억과 김소월은 예술적으로는 프랑스 상징주의에서 이러한 사유를 가져왔다. 보들레르와 베를렌느의 시편들이 이들의 배경에 놓여있다. 김억이 이러한 영향의 매개자였다. 그는 프랑스 상징주의 시론을 번안해서 식민지 조선의 문단에 소개했다. 당연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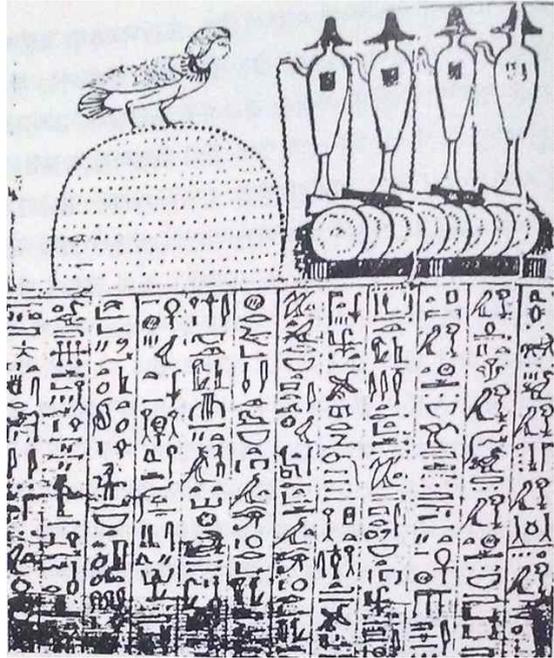


그림 1 이집트 <<사자의 서>> 85장에 나오는 그림과 상형문자인데 무덤 위의 새인간은 무덤에 묻힌 자의 혼령을 형상화한 것이다. 지하세계에 갇히지 않고 자유롭게 날아다닐 수 있는 모습을 표상한 것이다. 이러한 사람얼굴의 새의 몸체를 한 새인간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도 볼 수 있다. 세계 각지의 선사시대 암각화에서도 새인간 모티프는 많이 등장한다. 선사문화는 영적 세계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각지의 사만적 문화가 그 체계를 전승시켰고 서구적 근대문명에 의해 이러한 문화적 줄기들이 잘려나갔다. 김소월의 <접동새>는 우리 설화속에서 전승된 영혼으로서의 새인간 모티프를 차용했다. 소월시에서 우리는 선사적 문명과 맥이 닿아있는 영적 존재계에 대한 관심을 보게 된다. 그는 우리 민족의 그러한 전통과 프랑스 상징주의 풍의 영적 관심을 통합하여 이 주제를 발전시켰다.

그의 제자였던 김소월에게도 이러한 영향력이 뻗어있었을 것이다. 김소월의 시들이 전통적인 민요풍과 연관된 것이 분명하지만 그의 시들이 매우 섬세한 감각적 이미지나 감정의 풍부하고 다양한 뉘앙스를 갖고 있는 것은 민요풍으로 설명될 수 없다. 그가 상징주의적인 기풍에서 어느 정도 영향받은 것은 분명하다. 그의 시 <빛소리>에서는 베를렌스가 직접 언급되며, 베를렌스의 시 <거리에 비내리듯>의 한 구절을 어느 정도 차용하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시혼>에서 제시되는 영혼론이 무조건 상징주의적인 이데아론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이 시론에서 자신의 영혼이 '나'에게 몸보다 더 가까이 있으며, 그림자처럼 가까이 있다고 했다. 그는 '나'라는 존재를 핵심에 놓고 영혼의 범주와 육체의 범주를 원근법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이다. 즉 '나'라는 본질적 핵심은 변하지 않으며, 영혼과 육체로 갈수록 '나'의 다양한 그림자 존재처럼 수시로 변화하게 된다고 말하는 것이다. 그것은 '영혼'과



그림 2 피카소의 <세악사>(1921). 소월에게 영혼은 '악기'였다. '나'는 그렇다면 '악사'가 되는 것이 아닌가? 영원불멸하는 '나'는 '영혼'과 '육체'를 입고 살아가면서 다양한 삶을 연주하는 것이 아닌가? 피카소의 '세악사'는 서로 다른 악기를 연주하고 있다. 그들은 서로 다른 형태와 구도를 갖는 기하학적 형상들로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기하학적으로 포착된 형태들의 예술적 구성이 '악사'들의 본질처럼 보인다. 그들의 본성이 '악기'를 자신의 특성대로 연주하게 될 것이다. 그 음악이 바로 그들의 삶이 된다.

인식체로서의 영혼 개념이 '거울'로 표상된 것이다. 그리고 이 세계와 세상의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영혼은 마치 '악기'처럼 그에 반응하거나 자신을 표현한다. 가야금의 줄처럼 그것은 진동한다. 여기서 '영혼'은 '시혼'의 개념으로 전환된다. 소월에게 '시혼'은 그저 '시인의 영혼'일 뿐이다. 안서 김억은 서로 다른 시들에 스며있는 각기 다른 '시의 영혼'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인데 소월은 그것을 무시하고 그에 반박하기 위해 '시인의 영혼'이란 개념으로 '시혼'이란 말을 쓰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오해가 있었는데 당시로서는 이러한 세밀한 비평을 전개할만큼 비평이 진화되지 않았으니 그러한 오해들은 어디에나 있었다.

우리는 이러한 오해에 대한 논의보다는 소월 자신의 영혼 개념에 더 주목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해야 그의 시편들에 나타난 '감정의 지도'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고, 그의 시적 탐색의

'육체'가 세계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변화하기 때문이다. 육체는 세계의 사물을 보고 먹고 마시며 산다. 육체의 감각들은 이 삶을 통해서 작동하며, 그렇게 해서 삶은 감정들을 갖게 되고 삶은 그러한 감정의 물결로 출렁이게 된다. 감각들은 세계를 받아들이는 통로이며, 세계에 대한 '내 육체'의 느낌들이다. 일차적인 삶이 거기서 형성된다. 감각은 세계와 사물에 대면하면서 생기는 순간적인 것들이다. 그러나 감정은 그러한 것들이 '내' 안으로 들어와 형성되는 물결들로서 좀더 지속적인 것이 된다.

이러한 나의 견해는 김소월이 영혼의 비유로 제시한 '거울'과 '악기'의 개념에 어느 정도 연관될 수 있다. 영혼이란 것은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는 것이지만 마치 '거울'처럼 맑고 투명하게 세계의 형상들을 비추는 것이다. 투명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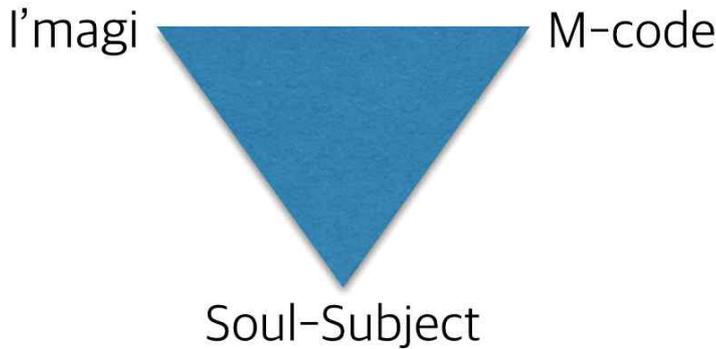


그림 3 이 심(SIM)기호학 삼각형의 S는 '나'라는 주체의 실제영역이다. Soul-subject 정도로 지칭할 수 있다. 우리는 김소월의 <시혼>에서 제시된 입체적 원근법으로 구성된 '나'를 여기에 적용해볼 수 있다. 즉 '나'라는 실체는 가장 가까이 그림자처럼 거느리는 '영혼'으로 싸여있고 그 다음에 '맘'과 '몸'의 순서로 둘러 싸여 있는 입체적 원근법적 구성물이 된다. 위 기호 삼각형은 역삼각형인데 일종의 창조적 기호이다. I'magi는 '나'(I)의 창조적 사유와 상상력의 활동이며, M-code는 Material-code, Metamorphosis-code 등을 가리킨다. 이것은 객관적 현실의 지속적인 구조들을 만들어가는 기호와 제도(법), 물질들의 구성코드, 종들의 유전적 코드 등을 가리킨다. 심지어 그것은 문학예술의 기존 문법과 기호체계를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 세 항목은 서로 긴밀한 상호관계 속에 놓여있다. 이 세 항목의 상호적인 역동적 관계 속에서 서로가 조절되며 그것으로 세계가 세상이 창조되고 지속되며 변형된다.

력한 힘을 행사한다. 물론 S뿐 아니라 I, M 항목도 그러한 자체의 주체적 힘들을 갖고 있다. 일단 '나'의 중심적인 자리를 S에 두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S는 주체적인 것으로 보이고 다른 항목들은 덜 주체적으로 즉 객체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러한 힘들은 '나'의 위상이 어디에 있는가에 따라 조절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심기호학 삼각형은 '나'의 존재의 밀도를 측정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다. 세 항목들의 상호관계가 밀접할수록 '나'의 존재의 밀도는 증폭된다. 그리고 세계와 세상은 한층 더 풍요로워진다. 우리는 이 상호 긴밀도의 크기를 세 변의 크기로 설정할 수 있다. 따라서 세 변의 길이가 커질수록 긴밀도가 커진 것이며 그렇게 해서 확장된 삼각형의 크기는 세계와 세상의 풍요로움의 크기를 보여주는 것이 된다. 우리는 각 항목의 어떤 것들이 이러한 긴밀도를 부여하게 되는지 생각해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서 S의 영혼과 감정, 감각의 밀도가 상승된다면 그것이 I'magi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상상력과 창조력은 증폭된다. 세계의 물질과 기호와 제도들은 이러한 창조력 때문에 더 풍성해지게 될 것이다. 물질들은 예술이 되고 건축이 되며 기호와 제도는 풍성한 의미들로 충

목표에 대해 더 깊이 알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몇 년 전의 강의를 에서 SIM기호학에 대해 논한 적이 있었다. 우리가 여기서 문제삼는 영혼의 범주는 이 심기호학의 삼각형에서 주체(Subject)에 속하는 것이다. 감정과 감각의 영역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속한다. 나는 소월의 '영혼의 고양과 상승'이란 주제를 파악하기 위해 이 기호학을 동원했었다. 이 심기호 삼각형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다양하게 변동하는 것이었다. 주체의 자리 역시 변화한다. 영혼의 상승은 그 위상을 상승시키며 그것은 삼각형의 다른 항목 즉 I'magi(이마기)¹⁾와 Material-code(물질 대상, 세계, 기호, 제도 등)에 강

1) 이마기는 I(나)와 image와 magic의 결합체이다. 세계의 형상들과 더불어 '내'가 그 형상을 파악하고 포착하는 방식이 작동한다. 그것은 '나'의 내면적인 사유와 결합하고 상상력으로 꽃피어나 창조적인 형상들을 만들어낸다. 그것은 형상의 마법인 것이며 '내'가 창조하는 세계인 것이다. 이러한 것이 바로 '이마기'이다. 심기호학에서 이것은 S의 영혼, 감정, 감각들과 상호관계 속에 있다. 그리고 M의 영역들은 '이마기'의 세계에 개입해들어온다. 그것은 재료이기도 하지만 창조대상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한번 창조되면 그것은 단단하게 굳어져 지속하려는 성질을 갖게 된다. 이 지속성이 세계와 세상의 지속성을 이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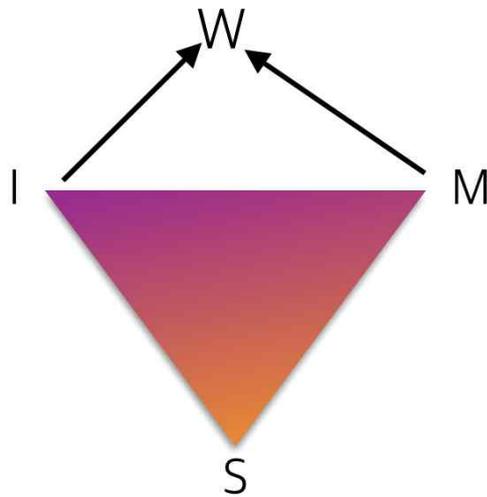


그림 4 심(SIM)기호학 삼각형과 WISM 다이아몬드: 심기호 삼각형 위쪽의 W는 세계(세상)를 가리키는 World이다. SIM기호 삼각형의 각 항목이 서로 상승적인 활동을 함으로써 이 다이아몬드는 더 아름답고 풍성해질 수 있다.

만해진다. 그러한 세계와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행복한 것이 된다. 우리는 이렇게 자신의 존재를 상승시킴으로써 세상을 새롭게 풍성하게 창조하게 되는 것이다. 계급적 이해관계를 조정함으로써만 세계를 변혁하고 새로운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는 맑스주의적 사상체계는 이 심기호학에 의해 비판되고 극복되어야 한다.

소월이 자신의 시에서 ‘거울’과 ‘악기’의 표상을 밀고 나갔다면 그는 영혼의 밀도를 증폭시키는 방향을 택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는 <시혼>에서 그 두 표상을 “가장 높이 느낄 수도 있고 가장 높이 깨달을 수도 있는 힘”이라고 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가장 강하게 진동이 맑지게 울리어오는, 반향과 공명을 항상 잊어버리지 않는 악기”라고 했었다. 즉 ‘거울’과 ‘악기’는 이렇

게 최상의 강렬한 느낌과 깨달음, 투명한 반향과 공명을 일컫는 것이었으며, 그것은 바로 영혼과 육체적 감각의 최대치를 향해 조율된 악기의 줄이거나 흠없는 반사경같은 의식이나 마음 같은 것이어야 했다. 그가 시를 쓰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경지를 향해 자신의 ‘순수한 영혼’을 고양시키는 것이었을 것이다. 이것이 김소월이 <시혼>을 쓴 것에 대한 나의 가설이다. 그의 시편들을 통해 이 가설을 한번 점검해보도록 하자.

<<진달래꽃>>의 여러 장들을 감정의 다양한 양상과 그것의 상승, 하강의 면모들을 우리는 살펴보고 그로 인해 이 시집의 구도를 대략 파악해보았다. 이제 심기호학의 관점에서 우리가 위에서 다루어왔던 감정과 감각의 문제들은 S와 I'magi의 상호관련성에서 재조명될 수 있다. 소월은 10장의 <밭고랑 위에서>를 통해 가장 빛나는 황금빛 다이아몬드 세상을 보여주었다. 환희의 감정이 고양되고 있었으며, I'magi는 고양된 영혼과 감정의 풍부한 영양분 속에서 황금빛 들판과 뜨거운 태양, 바람에 일리우는 보리밭의 이미지를 새로운 세상의 유토피아적 이미지로 만들어낸다. 이 ‘사랑의 유토피아’ 장을 대표하는 시편은 시인의 꿈을 표현한 것이다. 이 유토피아적 꿈의 세계를 향해 가늘게 이어지는 길을 시인은 탐구하고 또 그 길을 걸어가야 했다. 아마도 현실적인 가능성 속에서 그러한 꿈을 향한 길을 탐색하게 되었을 것이며 그 주제가 바로 우리가 앞에서 논했던 13장의 주제였다. 그 주제가 도달한 최대치의 시편으로 <춘향과 이도령>을 논했으며 그 연장선상에 <칠석>이 있다고 말했던 것이다.

이러한 도달점을 향해 소월은 자신의 시론인 <시혼>에서 제기한 ‘영혼의 고양’이란 문제를 더듬어 나갔을 것이다. 나는 이 주제가 <초혼>이란 시로 드러난 ‘초혼’의 문제라고 본다. 그의 여러 시편들에서 ‘그리움’이란 기본적인 정조가 점차 극한적인 상황으로 내몰릴 때 거기에는 언제나 무덤과 죽음의 세계가 있게 된다. 그리고 ‘그리움’은 현실계 너머에 있는 어떤 영혼들을 현실계로 불러들이는 ‘초혼’으로 나아간다. 그의 여러 시편들에 전개된 이 ‘초혼’의 몇가지 양상과 단계를 파악해보기로 하자. 거기서 ‘영혼의 고양’을 위한 시인의 의도나 구도 같은 것들이 감지될 수 있을지 모른다.